

- 7/18 大邱↓高靈郡廳(石塔·石燈·佛像)↓高靈農高(石塔·其他石造物·磁器類)↓月光寺址↓海印寺(大藏經閣)
- 7/19 海印寺↓清涼寺(佛像臺座·塔·石燈·基壇)↓靈岩寺址(石塔·石燈·龜趺·築臺·基壇·臺座等)↓高靈邑內幢竿支柱↓大邱
- 7/24 慶州博物館(石窟庵 出土瓦類 調查(申榮勳 鄭明鎬))
- 7/27 8/4 佛國寺 大雄殿 極樂殿 觀音殿 毘盧殿 白雲清雲 蓮花 七寶橋 尺(申榮勳 鄭明鎬)
- 三、來窟人士
- 7/20 道文化係長 7/21 道知事 7/27 慶州市長 道文化課長 7/31 梨大 秦弘燮 金成俊 教授 同大學 博物館 姜敬淑 金和英 朴日薰 8/1 國博 尹武炳氏 8/4 國博 崔淳雨氏

네른의 李朝童子像

崔 淳 雨



本彫의 李朝童子像은 國內에 아직 도 조그마한 作品들이 남겨져 있고 또 런던의 大英博物館에도 좋은 作品이 展示되어 있지만 西獨 崔른市에 있는 東洋博物館所 藏의 童子像처럼 크고 잘된 것은 그 예를 본일이 없다. 통나무 松材로 받침까지 붙쳐서 하나로彫刻한 이 童子像은 전체 크기가 九三cm 몸만 八五cm이니 이러한 童子像으로서

— 第四卷 第九號 通卷三十八號 —

는 最大級の 作品이라고 할만 하다. 고개를 약간 바른쪽으로 돌려서 입가에는 가냘픈 미소를 풍겼고 두 다리는 조금 벌린채 가슴에는 큰 새를 한 마리 안고 있는데 새를 안고 있는 두 손이 정중하게 포개져 있는 것을 보면 안겨져 있는 새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원래 새는 앞을 바라보며 안겨져 있지만 새의 목이 떨어져 나가서 새가 무슨 새인지도 분간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고 반쯤 펴고 있는 두 쪽이지만 보면 매 같은 느낌도 있으나 봉황새 꼬리같이 생긴 긴 꼬리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면 봉황새 같기도 느껴진다. 童子의 오른쪽 허리에는 큼직한 영남과 장도칼이 늦은막이 느러져 있으며 등 뒤로는 술이 많은 종각머리를 탐스럽게 파아내려서 붉은 멩기를 달고 있다. 앞으로 보면 안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허리에는 피자락이 피를 띠고 있음을 알겠고 두가랑바지의 아랫도리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들려져 있는 것이 마치 戲書와 같은 表現을 보여 微笑를 자아내 준다.

面相과 頭部의 前面에는 아마 補修의 자취인 듯 친을 바르고 그 위에 設彩를 했으며 등에도 原材가 터진 部分을 친으로 바르고 칠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原材의 보존상태로 보나 친으로 바른 面相의 솜씨로 보나 普通 흔하게 볼 수 있는 近世의 作이 아닐 것 같으며 적어도 十六、七世紀頃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李朝의 木彫佛像들에서 볼 수 있는 하잘것 없는 技巧나 品格에 비하면 이 童子像에는 李朝의 鄉土분위기가 假飾없이 純粹 素朴한 솜씨로 表現되어서 民藝의인 분위기를 구수하게 풍겨주고 있는데 그 出處는 알 수 없으나 二次大戰前에 이미 收藏된 것이라고 한다. 異例의인 이 作品의 由來에 關해서는 다른 知見이 없으나 흔히 國內佛敎寺刹에 남아 있는 小形 童子像과 比較하면 이 作品의 服飾과 表現이 너무나 民俗的이고 또 佛敎寺刹에서 볼 수 있는 結髮童子像과는 달리 멩기머리를 파아느린點等 原所在나 用途에 對해서 밝혀야 할點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